

대선 패배 반성문 써내려간 與 “47.8% 지지 안도해선 안돼”

닷 올린 비대위 첫 회의...반성과 쇄신 약속 윤호중 “교만함이 패배 불러...분골쇄신할 것”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닷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비대위 첫 회의를 통해 “47.8%의 지지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선 패배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n번방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였던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일성으로 “47.8%라는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게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 남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뿐이다”며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력형 성별과 엄벌을 강조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도입하겠다. 성비위와 성

폭력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라며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나태함과 안일함의 결과”라며 “송구하다는 말로는 저희의 과오를 씻을 수 없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위원장은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다”며 “오늘 시작하는 비대위는 국민의 과녁이 되겠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달라”고 말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적게 패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패배했다”며 “아깝게 진 게 아니라 끝내 이기지 못했다. 1600만명의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만 그제 민주당이 적게 바뀌어도 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당제 정치개혁, 선거구제 관련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재보선 패배 이후 매우 아팠지만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데 이르지 못하고, 그제 두 번째 패배로 이어졌다”며 “누군가는 근소한 표차를 두고 ‘졌잘싸’라며 위안을 삼지만 우리는 준비된 후보, 좋은 정책, 단합된 조직으로도 정권교체의 강한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 벽이 아주 높고 견고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이 대거 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천 비대위원도 자심발언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5년간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쌓아왔



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수반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줬다”며 “그런데 우리는 모른 척 외면하거나 그래도 야당보다 낫다는 식의 자만심에 빠져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5년이라는 짧은 여당 시기를 끝내고 풍찬노숙의 야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반드시 견제하는 수권 정당으로 함께할 만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위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내로남불, 강성 지지층 등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채 위원은 “내로남불 때문에 졌다. 우리만큼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며 “강성 지지층도 문제였다. 정확한 일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적 이익을 쟁기려는 소수의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이슬기자

이준석 당대표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 뒷받침해야”

“다음주 중으로 공천 가이드라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4일 6·1지방선거와 관련해 “180석 민주당 상대로는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석해 “이제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선)출구조사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총리 인준이나 장관 인사 등을 가지고 맹렬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 온 공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중으로 공천과 관련해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기가 좀 이를 수 있겠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권영세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3선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 이날 최고위에 임명안을 상정했다.

이 대표는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대선 전에 이미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신 바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모실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안철수 “춤춤한 국정 청사진...성공한 정부 밑그림 그릴 것”

“반드시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 그려내겠다” 강한 의욕 보여 공정 복원, 지역균형발전 등 과제...인수위 운영원칙은 ‘겸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14일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청사진 준비와 관련한 시대적 과제로는 ▲공정·법치·민주주의의 복원 ▲미래먹거리·미래일자리 기반 조성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 ▲국민통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며 “지역 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운영 원칙으로는 겸손과 소통, 책임 등 세가지를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다.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한 파트는 의료 파트에서 방역이나 백신 정책 또는 중환자 병상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담당하게 된다”며 “또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여러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공무원,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의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며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